

제 목 : 제12차 스마트홈리더스포럼 조찬간담회 결과

1. 회의일시 : 2017. 8. 24(목) 07:30~09:00

2. 회의장소 : 웨라톤 서울팔래스강남호텔 3층 체리룸

3. 참석자 : 발표 포함 총 19명

○ 협회 : 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 서병삼 회장 포함 총 5명

○ IoT/가전 : 삼성전자 도영수 전무, LG전자 백승면 상무, 삼성SDS 황성준 그룹장, LGU+ 김용식 팀장

○ 홈솔루션 : 경동원 윤기권 상무, 코맥스 노정환 상무, 코콤 배용우 상무, 현대통신 김기석 부장, 그립 정연규 사장, 아이디어팜 채이식 대표(발표), 인포테리어 김동윤 대표(발표)

○ 학/연 : 전자부품연구원 이규복 본부장, 국가기술표준원 이정구 코디, 서울대학교병원 김석화 교수

4. 회의결과

○ 스마트홈 인테리어 발전방안(인포테리어 김동윤 대표)

- 글로벌로 4차산업혁명이 도래하여 IoT, VR, AI 등 신기술이 도입되고 발전되어 가고 있으며, 기술은 인테리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면서도 산업 종사자들(공급자)의 기술이해도 부족과 소비자들(수요자)이 특별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서 큰 수요가 늘지 않고 있는 상황임

- 이러한 상황은 IT강국인 대한민국의 위상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음. 따라서 공급자 기준으로 기술 교육을 통하여 시장 확산을 창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인테리어 공간에 스마트 인테리어를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

▶ 인테리어 관련 회사는 많이 있으나 인테리어와 플랫폼을 결합하여 제공하는 회사는 드물다는 점이 기회시장으로 보여짐

▶ 인테리어의 경우 건축과 예술의 경계시점으로 시공능력이 아닌 사용자의 욕구의 충족가능 여부가 중요할것으로 보여짐

▶ 이에,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을 높임으로써 디자인Fee를 통한 사용자 욕구를 충족하는 사례를 모델화하고 시공이 아닌 디자인에 포커싱하여 사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면 산업이 활성화 될것으로 예상됨

▶ IoT디바이스와 접목된 인테리어_IoT산업과 융합을 통하여 산업의 파급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할것으로 보여짐

- 스마트융합가전 개발을 위한 서비스 모델 분석 및 메디치 아이디어 전략(사용자 관점을 중심으로)(아이디어팜 채이식 대표)
 - 아이디어를 통해서 바라본 소비자의 욕망은 끝이 없다. 사용자의 인터뷰 보다는 사용자가 원하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볼 때 그 무한함은 명확해 지며 아이디어를 소비자 니즈를 정확히 짚어내는 새로운 방식임
 - 이런 관점에서 스마트 홈의 미래 방향은 언웨어러블 홈, 웨어러블이 대세인 시대에 유감스럽게도 아이디어를 통해서 본 소비자의 욕망의 도달점은 웨어러블이 아닌 언웨어러블임
 - 언웨어러블을 향하고 있는 사용자의 욕망은 1차적으로 내가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가정 내 기기가 알아서 작동해주는 개념을 절대 선호하지만 이것으로 소비자의 욕구는 멈추지 않으며, 살아남은 도구는 좋고 럭셔리하고 고성능 기기가 아니라 소비자보다 아래로 흐르는 기구로 변화됨
 -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혁신을 추구하며, 혁신을 위하여 아웃사이드인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함
 - ▶ 가전은 소비자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며, 본능적이며 감성적인 영역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개발자 관점에서는 기술적으로 접근하려는 성향이 강함
 - ▶ 가전을 개발하는 테크니션의 기술적인 관점과 사용자의 욕구의 관점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을 소비자의 잠재적인 욕망을 기술화할 수 있도록 감정적이고 감성적 접근이 필요함
 - ▶ 소비자의 Needs를 반영한 기술을 하루아침에 솔루션으로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, 아이디어를 사용자 관점에서 기술화 될수 있도록 “리더스 포럼”을 통하여 기술 및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필요
- 총평 : 금일 발제된 내용이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협회 주도로 만들어 나가겠음

